

POLITICS

광주 세계양궁대회 결승전 6일간 열린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광주 수돗물, 먹는물물 '적합' 45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광주 수돗물, 먹는물수질기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정수장 2개소, 수도꼭지 150개소,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8개소, 급수과정별 시설 21개소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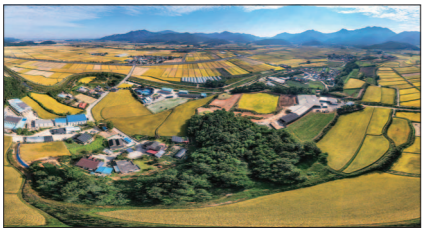
우선 수도법에 따라 지역 정수장(용연·덕남)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실시, 먹는물수질기준 전 항목(60개)에서 페놀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 45개 항목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0.020~0.022mg/L, 기준 0.1mg/L 이하) 등 나머지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정수장에서 가정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미생물에 안전한 소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탁도 등 11개 검사 항목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했다.

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수질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기자 sky@gwangnam.co.kr



유기농 생태마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2024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인 신안마을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유산 친환경농산물 매력 발굴

전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의 생태환경, 숨은 관광명소, 친환경농업 현장 등을 주제로 '2025년 유기농 생태마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10개 우수 홍보영상을 선정한다.

사업은 유기농 생태마을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영상으로 기록해 더 많은 사람이 유기농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을 연결하는 등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출품작은 영상 전문가의 작품성, 창의성, 완성도, 영상미, 활용성, 5개 항목 심사를 거쳐 11월경 10개 우수 홍보영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개인이나 팀에게는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홍보가 가능한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 홍보영상은 전남TV,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061-286-6341)로 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많은 분이 참여해 유기농 생태마을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이로운이 널리 알려질기 기대한다"며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유기농 생태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유기농 생태마을 68개소(19개 시군)를 지정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6일간 펼쳐진다.

광주세계양궁대회조직위원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대회' 결승전은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세계양궁대회 결승전은 통상 3일간 진행됐지만 이번 대회는 1931년 대회 창설

9월 7~12일 5·18민주광장서...역대 최장

세계장애인선수권 결승전 9월 27~28일

이후 처음으로 6일간 일정으로 확대돼 관중들의 볼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세계양궁장에서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은 결승전 무대가 있는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활 시위를 당긴다.

광주세계양궁대회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에 각각 남녀 개인, 단체전, 혼성 등 총 10개의 메달이 걸려 있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도 오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현재 세계양궁대회는 예비 엔트리 등록이 시작됐으며 27개국 335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장애인양궁대회에는 12개국 132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신청했다.

조직위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은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주와 평화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세계양궁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세계에 문화·역사·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며 "결승 일정이 늘어난 만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셨으면 광주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목포·신안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도·시·군 현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목포·신안 행정 공백 최소화 당부

1년여 권한대행체제...시군정 안정위장 행·재정 지원 강화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목포·신안군 주요 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시와 신안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목포부시장과 신안부군수, 도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수산식품수출단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단체장 결여로 지역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각자 책임과 자질을 기리고,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정적 공직 분위가 조성돼 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례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국에 앞으로 1년여 기간 두 분 권한대행께서 공직자, 도민과 힘을 모아 지역을 잘 이끌어야 한다"며 "전남도도 긴밀히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도민께 안정과 희망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 전력자립률 고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부산·인천 등 5개 시·도 공동 산업부·국회 등에 공동 건의문

전남도와 부산시, 인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도는 2일 공동으로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 비수도권, 제주도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도 명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에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송거기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200% 내외로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건담회를



전남도와 부산시, 인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도는 2일 공동으로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전력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

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력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여하는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정복 시도협 회장, 광주 방문 "尹 탄핵 심판, 현재 결정에 승복해야"

5·18모지 참배...전남대 강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찾아가 자신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정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정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위기의 한국 정치,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형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기념 세미나' 열어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사진)은 2일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제사회학협회(ISA)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제프리 프레이어스 교수는 '위기의 세계에서 사회운동과 변화'를 발제에 나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명했다.



이민형배 의원은 비롯해 김영환, 백해련, 최현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회학회, (사)한국사회과학회, (사)한국사회과학회, 국회 공청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기자 solee235@gwangnam.co.kr

ACC상상마당 등 광주 도심 5곳서 문화공연

광주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물하는 도심 속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올해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걸어서 찾아가 수 있도록 5개 자치구 공원에서 공연을 펼쳐 광주시민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

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5곳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연다.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는 광주 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20회)과 광주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40회) 등이 총 60차례 공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광주시의 특색 있는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체감형 문화정책'의 하나이다.

광주시립예술단이 오페라, 발레, 클래식, 창작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동민 기자